



여수박람회 빅오 인파 현충일인 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빅오 해상무대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입장하는 배우들을 지켜보고 있다. 휴일을 맞은 이날 5만여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아 주제관 등 전시관을 돌며 흥겨운 한 때를 보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시농부' 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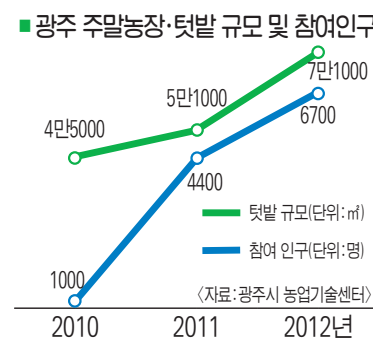
주말농장·텃밭농사 열풍...1년만에 30% 이상 늘어

직장인 박정희(39·광주 남구 방림동)씨는 2주에 한번 주말마다 광산구 평동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가족 텃밭을 찾는다. <관련기사 3면>을 3월 5평 규모의 가족텃밭에 감자와 상추·청경채·치커리 등 쌈 채소를 심어놓은 박씨는 주말이면 가족끼리 풀 뽑기, 물 주기를 하며 풍성한 수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재배중인 쌈 채소 일부를 수확해 가족들끼리 삼겹살 파티를 하기도 했다. 박씨는 "초등학생 아들(10)이 야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직접 심고 자라는 것을 보면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말농장에 참여하게 됐다"며 "자신이 키운 채소에서 인지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는 잘 먹어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에 참여한 시민 수는 67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올해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은 15개소, 도시 텃밭 16개 등 전체 31개소로, 면적만 7만 1000㎡에 이르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가 파악하지 못한 도시 텃밭 등을 고려하면 광주지역 '도시 농부' 수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등산 자락이나 서구 금호지구·중앙지구 등 광주지역 도심 곳곳에서는 개인이 땅을 분양해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에 주말농장과 도시텃밭이 늘면서 농자재 및 퇴비 판매도 늘고 있고, 작물 및 종자 등 농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블로그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양희열 도시농업담당은 "텃밭 가꾸기가 가족들의 정서함양 등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농장과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주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1만1836가구이며, 인구는 3만5743명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도시 속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을 주말농장과 도시 텃밭이 인기를 끌면서 광주지역에만 '도시 농부'가 1만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이 정착되면서 자연채를 통한 정서적 건강을 추구하는 가족단위의 '도시 농부'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3개소(면적 4만5000㎡)였던 주말농장과 도시 텃밭은 지난해 25개소(5만1000㎡)로 증가했고, 참여 시민 수도 1000여명에서 44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 텃밭이 생겨 운영되고 있는 것도 '도시 농부'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광주·무안공항 연계, 무안~중·일 운항

광주시 저가항공사 유치 추진

광주시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연계, 무안~일본·중국 간을 운항하는 저가항공사 유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의회 김영우(민주·동구 1) 의원이 광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손실금과 공항 시설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따라 이 같은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이 조례안에서, 국내선 취항공항인 광주공항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운항하고 있는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가 이처럼 광주공항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취항 항공사에도 재정 지원 입장을 밝힌 것은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일본·중국 간을 운항하는 저가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저가항공사 유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최근 광주~양양 간을 운항하고 있는 (주)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KEA)를 상대로 무안~일본 기타큐슈·후쿠오카 노선을 취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전남뿐 아니라 광주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알림

韓中수교 20주년 기념 “니하오 평여우” 사진 콘테스트

(你好朋友·안녕 친구)

한국인이 본 중국, 중국인이 본 한국
니만의 앵글에 담아 중국여행 떠나자

오는 8월 24일로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습니다. 광주일보사와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이를 기념해 광주 전남북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국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생활상과 중국 풍경,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응모해 주십시오. 우수작은 오는 8월 광주 전남북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합니다.

- 출품 마감: 2012년 7월 18일 오후 6시
- 참가 대상: 광주 전남·북 거주 한국인 및 중국인
- 작품 내용: 상대방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사진
- 시상: 대상(3박4일 중국 여행권, 중국 명주 1봉) 우수상(중국 양복항공권, 기념품)
- 접수: 홈페이지 (2012cn-krphotocontest.com)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중국총영사관 홈페이지(gwangju.china-consulate.org/kor/)
- 문의: (062) 2200-616, 385-8874

광州日報社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색깔공세 멈춰라”

민주, 새누리 '중복몰이' 반격

민주통합당이 6일 정부와 여당의 색깔 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의해 이념검증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해찬 후보에 대해 당 대표 경선에서 대립해온 김한길 후보까지 나서 두둔하며 뽀뽀 문지를 앞세웠다. <관련기사 3면>대선을 앞두고 중복 프레임과 색깔론을 앞세운 여권의 대야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복세력 운운하고 있고, 박 전 위원장은 국가관을 거론하며 색깔론과 이념대결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역사와 국민을 위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사상검증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로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도 튼튼한 안보와 한미일의 동맹 공조를 빼버리고 '중복' 운운하며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대표경선에 출마한 김한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새누리당의 치졸한 색깔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북한 인권법을 계기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이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에 대해 퍼붓는 색깔 공세는 현 정부의 무수한 실정을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이 후보를 두둔한 뒤, “민주당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냉전적식과 대결 구도에 사로잡혀 남북 관계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려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일처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이념 심사는 악질적 매카시즘”이라며 “매카시즘 광풍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지사 “중복논란 무의미”

올 연말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현충일인 6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중복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목포 현충탑광장서 열린 제57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과거 남북은 서로 무력으로 통일하려 했지만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뒤로 대화를 통해서도 통일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더 이상 (중복논란 등) 서로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중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단지 어떻게 북

한을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지사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전남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 의로운 지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의향의 명예를 지키고 밝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